

| 제 1 회 |

대한민국시민연극제 인천

시민연극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럼

| 일시 | 2022년 11월 11일 금요일, 오후4시

| 장소 | 인천수봉문화회관 2층 세미나실



| 주최 | (사)한국연극협회

| 주관 | (사)한국연극협회 인천지회 · (사)한국연기예술학회

| 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회 대한민국시민연극제 인천

시민연극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럼

일 정	식 순	
16:00~16:10	【입장 및 개회자】 【개회사】 _ 최종욱((사)한국연극협회 인천지회장) 【축 사】 _ 이영란(경희대학교 교수)	좌장 _ 이영란(경희대 교수)
16:10~16:50	【발제 1】 _이신영(성결대 조교수, 금천연극협회장) 〈시민연극의 지속 발전을 위한 방안〉	토론 _ 홍세희(안양대 강사)
16:50~17:30	【발제 2】 _이진경(이화여대 초빙교수) 〈시민연극 활성화를 위한 예술전문가 도입 방안에 관한 제언〉	토론 _ 우상전(배우)
17:30~18:10	【발제 3】 _박진태(여주대 교수) 〈시민연극과 함께 생활예술가로 살아가기〉	토론 _ 이유경(중앙대 교수)
18:10~18:40	【종합토론 및 질의】	
18:40~19:00	【폐회 및 기념촬영】	

CONTENTS

▶ 발제 1

- 시민연극의 지속 발전을 위한 방안
- 서울연극협회 지부 활성화를 중심으로 -7
이신영 (금천연극협회장)

▶ 토론 1

- 시민연극의 지속 발전을 위한 방안 질의문19
홍세희 (안양대학교 공연예술학과 강사)

▶ 발제 2

- 시민연극 활성화를 위한 예술전문가 도입 방안에 관한 제언23
이진경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초빙교수)

▶ 토론 2

- 시민연극 활동 활성화를 위한 예술전문가 도입 방안에 관한 제언에 대한
질의문35
우상전 (배우)

▶ 발제 3

- 시민연극과 함께 생활예술가로 살아가기39
박진태 (여주대학교 방송영상미디어과 교수)

▶ 토론 3

- 시민연극과 함께 생활 예술가로 살아가기 질의문49
이유경 (중앙대학교 연극학과 겸임교수)

【발제 1】

시민연극의 지속 발전을 위한 방안

발제 이신영 (성결대학교 조교수, 금천연극협회장)

시민연극의 지속 발전을 위한 방안*

- 서울연극협회 지부 활성화를 중심으로 -

이신영

(금천연극협회장)

I. 들어가며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서 국민은 물질적 풍요보다는 정신적 풍요를 중요시하는 시대이며, 국민의 가치관도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가치관의 변화는 교육 수준의 향상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문화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그 욕구 또한 다양화되어가는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¹⁾ 서울시의 25개 각 자치구는 많게는 65만, 평균 40만 이상의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인데, 이는 웬만한 중소도시 인구를 상회하는 규모이다. 하지만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된 지 오래되었고, 공연예술을 즐기려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욕구에도 불구하고 각 자치구에서 향유 할 수 있는 공연예술 인프라와 콘텐츠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게다가 서울시 공연예술의 지역적 불균형은 매우 심각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특정 지역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자치구 공연예술 현황은 지방의 군소도시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다.

특히 연극의 경우 많은 극장과 단체가 종로구 대학로 일원에 편중돼 있어서 서울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골고루 충족시키기에는 여러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 지역 문화의 차별성과 발전 가능성이 그 대안으로 내세워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 서울연극협회²⁾ 산

* 본 글은 '서울연극협회 지부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지부의 실태와 발전방안을 중심으로'(22.4.30,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를 참조하여 수정 보완한 것임.

- 1) 임영철(2008), 인천 전통 문화예술의 관광 상품화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학회, 2008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351.
- 2) 서울연극협회는 (사)한국연극협회 산하 16개 지회 중 하나이지만, 전국 7천 8백여 명의 회원 중 서울에서 활동하는 회원이 4천 4백여 명에 달할 만큼 대한민국 연극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지난 2004년 1월부터 (사)한국연극협회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서울연극 발전과 서울연극인의 권익 보호 등을 기치로 내걸고 운영되고 있다. 서울연극협회의 독립적 운영은 18년이 지난 지금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지만, 당시에는 내외부의 거센 반발과 저항이 있었다. 하지만, 서울연극협회의 분리 독립 운영은 다른 무엇보다도 전국에서 서울연극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연극인의 규모를 보았을 때, 시대적 소명과 변화의 욕구를 반영한 결과였다.

하 지부들의 창립과 역할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도 서울연극은 곧 대학로 연극을 지칭한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그 상징성을 지닌다. 대학로는 공연 관련 단일밀집 지역으로는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의 규모를 자랑한다. 또한 인사동, 경복궁 등 인근 지역의 문화 자원, 즉 전통, 미술, 역사 등과 연계하여 도시 활성화 및 경제에도 이바지하는 관광자원 벨트로 육성이 가능한 국가적 자산이다. 그러나 현재 가지고 있는 이점과 앞으로의 융합발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대학로의 핵심 동력이라 할 수 있는 연극인, 민간극단, 소극장의 위치는 매우 불안하고 위태로운 상태이다. 즉, 대학로는 대형화, 상업화되어가는 공연의 추세에 따른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따라 극단체체가 무너지고, 소극장이 연쇄 몰락하고 있으며, 급기야 연극인 사이에 '탈 대학로'를 모색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³⁾

이에 서울연극은 대한민국 연극의 메카인 대학로 연극의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각 자치구의 지부 활성화를 통해 균형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 바야흐로 지역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 시대를 맞아 우리 서울연극 또한 각 자치구에 맞는 전문적인 연극 콘텐츠 및 연극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이 요구되는데, 이에 있어 서울연극협회 지부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본 글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시민연극은 생활 속 문화예술 공동체를 형성하고 자생적 지역문화가 만들어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니고 있기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하겠다. 앞서 거론했던 것처럼 중앙으로 편중된 우리의 공연예술이 골고루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지역마다 공연예술 활성화가 절실하다.

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한 각 자치구 지원예술정책은 창작자인 연극인보다는 향유자인 시민을 위한 정책이 우선시되어 희생과 봉사를 감수하면서 묵묵히 헌신해 온 연극인은 늘 도외시되고, 이로 인한 시민연극의 발전 또한 지속되기에 아무래도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계속 되풀이해왔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지역 공연예술 활성화를 통한 서울 시민연극의 발전에 서울연극협회 지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시민연극 활성화의 전제로서 연극예술인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시민연극의 추동력으로서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지부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시민연극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지역 각 자치구의 문물을 활용한 공연콘텐츠

3) 이신영(2016), 대학로 연극의 진단과 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정책논총, 제30집 1호, 80.

개발에 힘써야 한다.

넷째, 시민연극의 지속 발전을 피하기 위해서 구립극단 설립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자는 지난 2013년 서울연극협회 제4대 집행부에서 감사직을 맡는 동안 지부창립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책임지는 역할에 있었다. 이후 2016년 제5대 집행부에서 이사 및 정책 분과 위원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금천지부장 등을 수행하며 지부 활성화를 통한 서울연극협회의 발전방안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왔다. 그렇기에 본 글은 연구자가 지부 관련 정책 수립과 지부 협의체를 통한 운영과정 속에서 나타난 한계와 발전 방향이 담긴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하였고, 의미 있다고 하겠다.

II. 머무르며

1. 시민연극 활성화의 전제_연극예술인 지원

연극예술은 무대라는 제한된 특수한 시공간에서 현존하는 연기자와 배우의 직접적인 소통에 의해 성립되는 고유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 외에도 연출가와 연기자를 비롯하여 많은 예술가들의 공동작업이 필수인 종합예술이라는 점, 현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경제적 개념으로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가내 수공업적인 작업방식을 띠고 있다는 점, 타 예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오랜 시간 연습해서 공연한다는 점 등의 이유로 코로나 19와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가 어렵다.

특히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극예술에 종사하는 대학로 연극인들의 평균 년 소득을 고려해볼 때, 코로나 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은 안 그래도 열악한 대학로 연극 창작 환경을 더욱 더 악화시켜서 그야말로 연극인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길게는 10년, 20년, 30년, 40년 이상 넘게 지탱해온 예술적 삶을 끝마쳐야 하는 운명의 순간을 맞게 했다. 이러한 연극인의 존망 위기 상황은 개인을 넘어서서 동인제 극단의 몰락과 민간 공연장 폐관이라는 최악의 결과가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 노력만으로 연극이란 복잡한 세계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즉,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연극만의 재미와 감동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인도자가 필요한데, 그 중심에 바로 서울연극협회 지부 연극인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시민연극을 활성화한다는 구실 아래 언제나 연극인들의 땀과 노력, 봉사과 헌신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어왔다. 무료 봉사이니 열정페이니 하는 허무한 구호가 난무하는 동안 우리 연극인의 삶은 더욱더 피폐화되어갔다. 다행히 몇 해 전부터 예산에 반영되어 책정된 연출료 또는 지도료 구실로 받는 비용이 있긴 하지만,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를 대상으로 최소 3개월 이상을 연습하고 공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도하는 노력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비단 비용 문제만은 아니다. 시민연극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서 우리 연극인이 존중받으며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요원하다.

따라서 현 시민연극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울연극협회 지부 연극인을 위한 직접 지원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 시민연극 활성화의 전제로서 연극예술인 지원은 첫째, 현실성 있는 인건비 관련 예산 책정과 더불어 시민연극을 보다 장기적으로 질 높게 성장시킬 수 있는 인적, 물적 구성이 정비되어야 한다. 최소한 몇 해 무료 봉사하다가 지쳐서 해당 자치구를 떠날 수 밖에 없는 약순환의 구조를 이제는 과감히 끊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2. 시민연극의 추동력_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지부 연대 강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공식 인준된 서울연극협회 지부는 20개이다. 종로구를 비롯하여 추후 창립 예정인 지부를 고려해보았을 때, 서울시 자치구 25개 중 4/5가 이미 창립되었고, 나머지 지부도 곧 창립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서울연극협회 지부의 창립 추세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현재 지부가 처해있는 모습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우선, 냉정히 말해서 각 지부의 회원 수가 적든 많은 연간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지부는 몇 개 되지 않다고 본다. 그것은 지부라는 모습을 갖추기 위한 인력과 공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지원시스템의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에 지부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첫째,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잘 구축해야 한다. 특히 각 지부가 소속되어 있는 구청 및 재단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처음부터 각 지부가 원하는 지원금을 선뜻 내놓을 구청과 재단 등은 없다. 그렇기에 연극의 특징점을 계속 어필하면서 시민을 위한 봉사 차원의 상당 부분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있어 자치구마다 크고 작은 축제들이 있는데, 지부 소속 연극인들이 지역 대표 축제에 관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면 다양할 수 있다. 우선 주제 메인 공연을 비롯한 크고 작은 공연을 해당 지부 극단이 맡고, 축제의 전반적인 또는 일부를 진행하는 것도 지부의 영역을 넓히는 방안일 것이다. 이에 있어 다음과 같은 노원지부의 초기 노력은 그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처음 노원지부장이 된 2015년 12월경은 지부에 아무런 지원도 없었다. (중략) 최초 민간 활동 보조비 명목으로 2백만 원을 지원받아 낭독공연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 ‘노원 탈 축제’, ‘초안산 축제’ 등에 참가하면서 기대 이상의 만족을 심어주게 되었다. 최선을 다해 공연을 통한 지역봉사를 수행해가는 가운데, 구청 자치행정과로부터 어린이 교육 뮤지컬 공연을 해볼 생각이 없느냐고 연락이 왔다. 지부 회원들이 그야말로 똘똘 뭉쳐서 극작, 연기, 연출, 제작, 홍보 등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중략) 결정적인 계기는 대한민국연극제 서울대회에서 『산송』이란 작품으로 대상을 탄 이후 지역신문에 나게 되고, 노원연극협회는 민을만한 단체라는 100% 이상의 신념을 심어주게 되었다. 지금은 단순히 구청이 지부에 지원하는 시스템에서 나아가 서울시 등의 공모사업의 설계단계부터 함께 구상하고 실행에까지 함께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⁴⁾

위 인터뷰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서로의 일면식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지속적인 봉사와 노력,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온 지부 회원들이 전력투구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냄으로써 신뢰를 준 것이 무엇보다 주효했을 것이다.

또한 서울연극협회와의 관계 구축을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 서울연극협회 전 집행부는 출범 당시 목표와 전략과제에서 균형 발전 및 지부의 지역 활동 강화를 천명한 바 있고, 현 집행부 역시 지부 활성화를 통한 모든 서울연극협회 회원들의 권익 도모를 하겠다고, 선택이 아닌 필연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있음을 상기해볼 때, 지부는 별개의 단체가 아닌 서울연극협회 산하 단체임을 잊지 말아야 하고, 상호 협력함으로써 상생해야 한다.

이에 평소 지역 연극 활성화에 소신이 있는 현 한국연극협회 이사장과 현 서울연극협회 부회장이자 지부 협의체 의장은 협회와 지부의 관계 설정 방안 그리고 지부 발전을 위해 역점을 두고 있는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한국연극협회 이사장으로서 지역 연극이 살아야 한국연극이 산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서울연극협회 지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서울연극은 전 세계적으로 큰 자랑거리이자 연극의

4) 김도형(2022.3), 서울연극협회 부회장·서울연극협회 지부 의장 인터뷰, 서울연극협회 사무실.

메카인 대학로를 부흥시킴과 동시에 25개 자치구마다 자체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활용하여 무대에 올리고,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연극교육프로그램이 개설되어야 한다. 아울러 실행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구청, 재단, 자치구 기업의 문을 두들겨서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한 방안 또한 본부협회, 서울연극협회, 각 지부가 함께 모색해야 하겠다.⁵⁾

지부의 활성화로 인해 자치구마다 연극이 꽃 피울 수 있도록 서울연극협회가 뒷받침해주고 보좌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연극제 서울대회를 지부에 소속된 극단 중심의 축제가 되도록 할 것이고, 서울시민 연극제를 지부 협의체가 주관이 되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지부 페스티벌은 지역의 연극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다. 이 모든 것에 있어 예산이 걸림돌이 되는데, 서울문화예술회관 연합회 등과 MOU를 체결해서 공간과 최소한의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⁶⁾

위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 한국연극협회와 서울연극협회는 지부 활성화를 통한 협회의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기에 지부와 적극적으로 연대하길 원하고 있음을 상기해볼 때, 서울연극협회 지부 또한 이에 보조를 맞춰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둘째, 지부 간의 연대 강화이다. 현재 각 지부의 현황은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가 분명하기에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장점은 같이 공유하여 발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도 정기적으로 지부 협의체라는 명목으로 분기마다 모이고 있고, 재정적 어려움과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서울연극 지부 페스티벌을 2년 연속 개최한 경험이 있기에, 지부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위해서 지부 운영 노하우와 연극 활동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활발한 공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시민연극의 관심 유도_지역 소재 문화콘텐츠 개발

지역 문화의 활동은 한국문화의 발달은 물론 지역 문화 발전과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왔다. 각자의 지역 문화의 특색이 있어 다른 자치 단체와 차별화되기도 한다.⁷⁾ 이에 서울

5) 손정우(2022.3),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인터뷰, 예총회관 한국연극협회 사무실.

6) 김도형(2022.3), 서울연극협회 부회장·서울연극협회 지부 의장 인터뷰, 서울연극협회 사무실.

7) 박규원(2014), 문화산업전략과 지역 문화예술에 관한 창의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학회, 2014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39.

연극 각 지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치구의 유적, 유물, 인물, 축제 등을 소재로 한 지역 소재 문화콘텐츠 개발에 각 지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이에 있어 괄목할만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이 필요한데, 우선 지부 협의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연극 지부 페스티벌’을 지역 소재의 문화콘텐츠 개발의 전초기지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지역을 토대로 하는 운영 주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의 예술계를 살펴 콘텐츠 운영의 능력이 있는 개인과 단체를 모으고 그들이 일종의 컨소시엄을 이루어 운영 주체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텐데, 여기에 시민대표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⁸⁾ 본 연구의 벤치마킹으로 삼은 경북 구미지부의 경우 전자공업 도시로 알려진 구미를 지역민과 함께하는 공연 예술 축제 도시로 승화시키고자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여 ‘구미 아시아연극제’를 국제 행사로 격상시켰고, 다양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부대행사로 개최하여 지역민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요컨대, 개발 단계에서 지부 회원만이 아닌 지역의 역사학자, 구청 공무원, 재단 관계자, 주민 등과 함께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아울러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작품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소속 구청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방편으로 구 차원에서 정기적인 공연 초청(지역 축제, 구민의 날 등)을 기획하고 서울시 25개 구 및 지자체 자매 결연 도시와 교류 공연을 추진하는 것이 주효하겠다.

4. 시민연극의 지속발전 모색_구립극단 설립

문화예술은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에서만 향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누구나 참여하고 공동체가 함께 어울려야 함을 지역민이 느끼는 것이다.⁹⁾ 그런 의미에서 서울연극협회 지부는 서울시 각 자치구의 특성에 맞는 연극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의 제공으로 지역 내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정서적 안정 및 문화적 감수성, 자존감을 높이고 건강한 문화인으로 발전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구립극단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구립극단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선 다음의 사항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구립극단의 위상에 맞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최소 상·하반기 정기공연을 할 수 있는 제작비를 투여함으로써 양질의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8) 오세곤 외(2021), 문화예술정책을 보는 창, 연극과 인간, 288.

9) 송은아, 임준목(2018),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의 역할증대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학회, 2018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52.

이와 동시에 시 또는 도에서 권장하는 수준 이상으로 단원의 규모와 처우 그리고 작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예산은 해당 자치구는 물론이고 매칭이 가능한 재원이 나올 수 있는 서울시나 문화예술위원회 등을 설득하고 지역의 기업 후원유치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구립극단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예산을 확충하여야 한다.

둘째, 소극장 건립 및 위탁운영이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대부분 공연예술센터 및 아트홀 등이 있지만, 이들 공연장은 대부분 500석 이상으로 구민들과 직접 호흡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기엔 매우 거대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자치구 내 청소년 및 직장인을 비롯한 시민들과 밀착하여 공연이 주는 풍요로움을 나누고 또한 그들이 자신들의 기량을 발표할 수 있는 소극장이 필요하다. 이에 있어 예산이 결핍돌이 된다면 기존의 건물을 개조하여 꾸미는 형태나 여러 예술 단체가 공동으로 예술 공간을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 및 지역 주민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소극장 건립 및 위탁운영을 통해서 각 자치구 시민들에게 연극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으며, 감동이 살아있는 수준 높은 작품을 제작해야 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닌,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 발전되어 지역 콘텐츠를 소재로 한 새롭고 아이디어 넘치는 공연물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찾아가는 연극이다. 이는 공연장을 방문하기 힘든 자치구 내 지역아동센터 및 복지회관 등에 적합한 공연물을 가지고 직접 시설을 방문하여 공연 문화예술 향수의 기회를 확대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 또한 자치구 내 초·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공연하고 또한 부대행사의 성격으로 공연 예술을 통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렸을 적부터 자연스럽게 연극이 주는 재미와 감동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학생들의 진로 모색에 도움을 주는 것이 가능하겠다.

넷째, 시민들을 위한 연극교육이다. 특히 자치구 내 청소년을 포함한 구민들의 정서 함양과 문화예술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각 대상에 적합한 연극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본 사업은 차츰 연극 지도자 교실로 확대되어 자치구 내 동 단위의 작은 연극제 및 페스티벌을 기획해볼 수 있겠다. 이는 각 자치구의 평생교육관을 통한 초등학생, 노인, 주부 등 프로그램 개설이 가능하며 점차 대상을 확대하여 대상 통합 프로그램(장애·비장애 또는 엄마·아빠와 함께하는 연극 만들기 등)으로까지 확대가 가능하다. 이러한 시민 연극 활동(어린이, 청소년, 주부, 노인, 장애인, 직장인 등 다양한 아마추어 극단 설립 유도 및 활동 지원)을 지원함으로써 피교육자가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마지막

으로 연극에 머물지 않고 국악, 무용,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사진, 공예, 디자인 등의 융합예술 및 국어, 도덕, 과학 등과 연계된 교과 접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연극을 활용한 문화예술 활성화의 노력에도 힘써야 한다.

Ⅲ. 나가며

이상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지역 공연예술 활성화를 통한 서울 시민연극의 발전에 서울연극협회 지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바람직한 지부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크게 연극예술인 지원의 체계화,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지부 연대 강화, 지역 각 자치구의 문물을 활용한 공연콘텐츠 개발, 구립극단 설립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본문의 내용에서 밝혔듯 서울연극협회 지부는 서울연극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대학로 연극과 더불어 지역 분권 시대 더욱더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글에서 강조한 바대로 서울연극협회 지부의 활성화를 통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서울 시민연극이 활짝 꽃 피움으로써 지부 회원과 시민들 모두가 행복해지길 소망한다.

【토론 1】

시민연극의 지속 발전을 위한 방안

토론_ 홍세희 (안양대학교 강사)

시민연극의 지속 발전을 위한 방안 질의문

홍세희

(안양대학교 공연예술학과 강사)

예술은 향유하는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성찰을 도모하는 것을 넘어 사람과 사람 그리고 지역 간을 연결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또한 고유한 문화예술 공동체를 형성하며 지역 문화가 만들어지는데 영향을 미친다. 시민연극은 이러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필립 테일러(Philip Taylor, 2003)가 언급했듯 공동체를 기반으로 개인적,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고 논의하며 예술로써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연극 활동을 통해 공동체 내에서 공동의 이슈를 공유하고 사유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체험을 할 수 있다. 또한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지역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이것이 예술과 예술인이 사회문화예술의 특성과 발전을 가져오는 촉매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예술인은 공연자의 역할 뿐만 아니라 예술 공동체를 이끄는 인도자이자 교육자이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기에 발제자가 발의한 내용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저조함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되었다.

발제자가 제의한 바와 같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들은 이를 실행하는 예술가보다는 시민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예술인의 교육과 지원 정책을 깊이 있게 논의함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사료된다.

이에 본 발제에 대한 논의가 시민연극이 가지는 목적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고 실행하기 위한 현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두 가지 질의를 한다.

첫째, 지역사회에서 시민연극 활성화를 전제로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예술인의 역할과 필요성이 설득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예술인 개인의 노력과 활동에 의지하는 부분이 큰 것으로 보인다. 발제자가 언급했듯 유관기관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서울연극협회와 지부가 협력하여 근본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

다. 지역문화예술사업에 참여하고 봉사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나 동시에 지역과 예술인 모두 시민연극에 대한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인지하여 시민연극의 활성화가 개인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과 변화를 가져오는 요소임을 확고히 하여 지역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시민연극 공동체 활동에 대한 인식이 지역사회에 확대되었을 때 일회성으로 끝나는 프로젝트나 작품이 아닌 지역과 시민 그리고 예술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 개발과 지원의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한다. 이를 위해 예술인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연극에 대한 교육프로그램과 세미나 등이 조금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에 대한 발제자의 고견을 묻는다.

둘째, 지역에서의 시민연극의 발전을 위한 네 가지 제안을 하였다. 그 중 첫 번째 제안으로 시민연극 활성화의 전제로서 연극예술인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했으며 그 방법으로 서울연극협회 지부 연극인을 위한 직접 지원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서울지역에서 연극인을 위한 직접지원정책이 비교적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있는지와 지원이 발제자가 제시하고 있는 직접지원시스템에 대한 내용과 그 가능성이 궁금하다. 그리고 지원정책이 지역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해야 할 것인데 지역과 예술인을 충족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에 대한 논의를 제안해 본다.

본 토론을 통해 지역공동체 예술 활동인 시민연극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예술인의 역할을 상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또한 예술인과 지역 그리고 시민이 예술을 통해 상생하고 보다 성장할 수 있는 정책과 실행가능한 방향성을 찾아보는 고무적인 논의장이 되길 바란다.

【발제 2】

시민연극과 함께 생활예술가로 살아가기

발제_ 이진경 (이화여자대학교 초빙교수)

시민연극 활성화를 위한 예술전문가 도입 방안에 관한 제언

이진경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초빙교수)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의 문화예술교육은 크게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사회 문화예술교육으로 나뉜다. 학교 문화예술교육은 학교와 아이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체험과 교과 연계로 진행되는 문화예술교육이며, 사회 문화예술교육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가 적은 지역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접근성을 높여주고 문화예술로 소통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한다.

지역사회는 일정한 지리적 구역을 전제 조건으로 일정한 지역에 사는 공동체 즉, 하나의 관심과 이해관계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집합체로서 지역 사회 구성원의 공동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도모하는 집단 조직체이다. 포스톤(poston)은 “지역사회란 공동의 유대관계가 있고 공동의 기능을 하는 지역으로서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지역 사회의 공동운명에 대해서 상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유해숙, 2020).” 고 하였다. 즉, 지역사회는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는 공동 집합체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국제결혼 사례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점차 다문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지역 사회는 다수의 집단의 문화와 소수 집단의 문화가 인종, 민족, 계급 등 여러 집단의 문화가 공존하게 되면서 지역 사회와 구성원들은 서로의 문화에 불가피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 문화예술교육은 지역사회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로 문화예술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고 그 역할에 대한 다양하고 다각적인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문화예술가와 지역 사회 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수동적인 교육대상이 아닌,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자로서 지역 및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안내하고 독려함으로써 예술가들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하고 지역 사회의 이해를 심화하며, 보다 낮고 공정한 삶을 고민하

고자 하는 욕구에서 출발” 하고 있다(김병주, 2009). 이러한 측면에서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시민연극은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통합과 소통을 위한 매개체로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인천 시민연극제는 ‘시민 속의 연극, 연극 속의 시민’ 슬로건 아래 시민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즐기는 축제로 인천에서 처음 개최 되었다고 최종욱 인천연극협회 지회장이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인천연극협회와 전문연극인들은 “이번 시민연극제는 연출, 연기지도 등을 통해 완성도 높은 공연 제작으로 진정한 시민참여 축제를 만들겠다.” 는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다.¹⁾

이에 본 연구는 지역사회와 문화예술의 상호 관계를 알아보고 지역사회의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서 시민연극과 예술 전문가의 역할을 통한 시민연극 활성화에 대한 함의를 살펴보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둔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시민연극의 주인공은 참여하는 시민이다. 시민들은 지역 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다문화 시대를 맞아 다양한 문화권의 구성원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시를 포함한 세계문화 도시는 문화예술의 접목을 통해 예술가와 시민의 공동의 문화적 가치를 찾고 있다(김금미, 2019). 박상은(2020)에 의하면 연극은 “예술제도의 경계 바깥에서 개인의 심리적 치유에서부터 생동감 있는 공동체의 구성, 계몽과 문화 혹은 정치적 투쟁의 도화선으로서 효과가 분명한 문화 도구” 라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사회와 문화예술의 담론을 통해 상호관계를 살펴보고 시민들이 직접 만들고 즐기는 시민연극의 필요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문화예술의 개념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시민연극의 연구 사례를 통해 예술 전문가의 역할을 정리하고 시민연극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 한다.

II. 지역 사회와 문화예술의 담론

그렇다면, 인종, 민족, 계급 등 여러 집단의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의 다문화 속에서 하나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매개체는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1) 인천광역시, 2022년 11월 4일, 보도자료

“전국에서 모인 시민극단 ... 대한민국 시민연극제, 8일 개막”-‘시민 속의 연극, 연극 속의 시민’ <제1회 대한민국 시민연극제> 中 발췌

문화는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 혹은 생활양식의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언어, 학문, 예술, 종교, 신념, 제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사회(Community)는 라틴어 ‘Communis’에서 유래 된 것으로 함께(Com)와 munis(봉사하는 일)의 합성어로 -ity를 붙여 공동체, 공동사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중세 시대에는 ‘성곽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 로 불렸으나 힐러리(Hillery)는 “지리적 영역(생활권, 물리적 자원), 사회적 상호 작용(사회관계), 공동의 연대감” 을 지역사회의 공통적 요소로 보았으며, 윌리엄스(Williams)에 의하면 “커뮤니티라는 용어는 서구의 14세기 영어권에서 사용하였으며, 원래의 의미는 지위가 높은 상급계층의 사람들과 대비되는 평범한 사람들 또는 일반 시민을 의미하였고, 16세기에는 공통적 요소를 지닌 어떤 특성이나 시민사회를 의미” 한다고 하였다. 린데만(Lindeman)은 지역사회에 관하여 다음 5가지로 구분하여 유형을 나누었다. “첫째,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지역으로서 산업, 상업, 문화 등이 밀집 된 지역. 둘째, 광업, 제철, 수출산업, 자동차공장 등 산업이 집중된 지역. 셋째, 상가, 백화점, 주요소 등이 밀집된 상업지역, 정부의 행정관서가 집중된 행정중심 지역. 대학교, 연수원, 기타 학교시설이 중심인 교육중심의 지역” 이 있다고 하였다.

던햄(Dunham)은 인구 분포와 경제적 기반에 따른 구분으로 지역 사회를 구분하였다. 지역 사회는 “사회생활을 하는 필요한 가치와 규범과 지식을 전수하는 사회화 기능을 통해 일반적 지식, 사회적 가치, 행동 양식 등을 지역 주민들의 상호 관계 속에서 터득한다.” 이러한 상호 관계 속에서 사회 구성원은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가치와 사회적 규범을 만들고, 공존하는 사회를 위한 통합을 시도한다.

지역 사회통합의 개념은 “통합이란 다양한 인종들과 집단들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관계로 형성해가는 과정” 으로 사회사업사전(The Social Work Dictionary)에서 정의 한 바 있다(곽미정, 2017 재인용). 김동일(1988)은 “사회통합에 실패하는 나라는 멸망할 수 있기에 통합의 궁극적인 목표는 확고한 정체 의식과 일체감평등을 전제로 문화적, 사회적 특수성을 인정하고 상호 인정과 다양성의 존중 위에서 공존의 추구를 전제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점차, 다문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지역사회의 통합은 사회 불안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두되면서 상호 인정과 공존을 추구하며 하나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 을 통해 사회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고 하였다. 이민경(2018)은 “통합은 문화적 이질성(heterogeneity)과 대비 되는 개념으로 통합을 주류사회에 흡수하는 비판적 여지가 있으므로 상호 필요하다.

그러므로 문화의 하위개념에 해당하는 예술은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의 행동 및 생활양식을 공유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전제가 가능하다. 이에 이정화(2014)는 “현

대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함을 수용하고 개인과 타 민족의 문화 간의 이질성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창의성과 감수성을 공유하고 표현함으로써 하나의 관계를 위한 공감대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고 하였다. 즉, 문화는 개인의 창의성과 감수성의 표현으로 심미와 예술적 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간의 특정한 가치를 선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의 사회화 기능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짐 아이프(2005)는 “지역사회는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과 교육을 통해 다양한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하고 지역사회를 통한 문화향유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고 하였다. 다시 말해, 상위개념의 문화는 예술 활동을 통해 공통의 가치를 찾고 지역 사회의 기능을 확대 및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공통의 행동 및 생활양식을 공유하고 공존하는 지역 사회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Ⅲ. 시민연극의 예술 전문가의 역할

시민연극은 비예술가인 시민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모든 과정과 결과물을 포함한다. 시민 연극에서 중요한 것은 참여자가 예술과 작품 관계 속에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통해 실천적 예술을 구현하는 것이다. 즉, 순수예술에서 연극의 관객이었던 시민들은 수동적으로 예술을 관람하였다. 그러나 연극 창작의 전 과정을 참여한 시민들은 예술을 능동적으로 경험하고 표현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시민연극의 사례 연구들을 살펴보고 시민 연극의 활성화를 위한 예술 전문가의 역할에 관한 함의를 정리해보고 한다.

황아람(2019)은 「한국 커뮤니티 연극의 전개 양상 연구: 수도권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총 9가지 시민 연극의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커뮤니티를 위한 연극으로서 생활예술 체험의 기회로서 시민 연극. 둘째, 커뮤니티와 함께 하는 연극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시민 연극. 셋째, 커뮤니티에 의한 연극으로 소외 계층의 목소리를 전하는 시민 연극의 3가지로 나뉘어 살펴보았다.

첫 번째 사례를 위해 연구자는 김포문화재단의 <우리 동네 김포>, 서울시극단의 <시민연극 교실>, 강동아트센터의 커뮤니티 아트 프로그램의 사례들을 통해 시민들이 연극을 주도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췄으나 공동체 문화 및 지역 문화를 형성하지 못하였고 생활 예술 체험의 기회로 제공되어 예술가의 기능이 축소되는 한계가 있었다고 하였다.

두 번째 사례를 위해 연구자는 인천문화재단의 <인천왈츠>, 성북동 북동마을 기반 극단 서울 괴담, 성미산 마을의 <성미산 동네 연극 축제> 통해 예술가와 참여자, 사회 구성원 사이의 공동체를 문화를 형성하고 예술가와 수평관계를 유지하여 예술가와 지역사회 주민 간의 건강한 문화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커뮤니티 연극 활동이 도시재생의 수단이 아닌 예술적 지향을 목표로 삼아야 하며 지역과 지속적인 협업을 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세 번째 사례는 연극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같은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 구성들이 자신들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냄으로써 경험과 아픔을 공유하고 치유의 효과를 얻었으나, 소외 계층의 제한된 정체성 안에서 그들의 공연은 예술과 미학적 고찰에 유예되는 경향을 보이며 예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세월호 가족극단 노란 리본, 장애 여성극단 춤추는 허리, 다문화 극단 샐러드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위의 사례 연구 분석을 통해, 시민 연극의 지역 사회의 시민 참여자의 역할이 예술의 체험의 기회로 제공되거나 참여자들의 정체성이 제한되었을 때 예술가의 기능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발적인 체험을 위한 기회로 제공이 된다면, 문화와 지역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에는 한계적 어려움에 봉착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예술 전문가는 참여자와 지역사회 간의 균형을 맞추고 공동체가 선도하고자 하는 가치를 선별하고, 목표를 세우고 공동의 정체성을 예술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여 지역 사회의 공동체 문화를 만들고 완성도 높은 예술로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듀이(Dewey, 2016)는 “예술은 그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의 경험을 보다 더 질서 있고 통합된 것으로 재창조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힘과 능력을 행사한다.” 고 하였다(임주현·김병주, 2022) 이에 구민정(2013)은 “다양한 연극 공연의 제작에 참여하거나 관람을 하는 것은 참여자의 형성과 관련된 내러티브의 구성에 심대한 영향을 준다.” 고 하였다. 그녀는 「예술 교육을 통한 민주시민성 함양 사례: 연극을 중심으로」의 연구에서 참여자들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연극을 통해 연극의 추체험과 상상의 계기를 제공하였고 민주시민 교육의 모형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즉, 예술 전문가는 참여자들을 연극에 참여시킴으로써 상상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험을 재현 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즉, 경험을 재현시키는 교육적 역할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원승(2018)은 「커뮤니티 연극 활성화를 위한 연극문화도시의 기반 형성 과정 연구 : 가평

군의 ‘어설픈 연극제’ 사례를 중심으로」의 연구에서 가평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이화리 연극마을’ 조성을 제안하고 ‘어설픈 연극제’를 개최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시민 연극을 지역의 교육기관들과 전문 예술단체들과 한국연기예술학회 등 전문 학술 연구 기관과 연계하여 주민 자신이 시민연극의 구성원임을 설득시키고 예술전문가들을 지속적인 멘토로 투입 시켜 시민 연극을 완성해 나갔으며 차별적인 시민 연극을 만들기 위하여 ‘어설픈 연극제’를 구상하여 어떤 형식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가평만의 독특한 색깔의 연극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목포 시와 이탈리아의 피에트라산타시의 자매결혼을 통해 타 도시와 관계를 맺고 문화교류의 토대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면서 시민 연극의 연극적 기획과 실행의 밑거름 기반을 설계하였다. 연구자는 본인이 스스로 전문 예술가로서 가평의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연극 문화도시로 마련하고 지역의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연극학적 기획을 실행시켰다. 이 사례를 통해 예술 전문가는 사회 구성원들의 예술 참여를 위한 멘토 적 역할 이외에 지역 사회의 정체성을 고취 시킬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타 도시와의 문화교류를 통해 지속성을 이어가고 성장 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총괄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알 수 있었다.

최운설(2021)은 「문화예술실천공동체 ‘아라리 시민극단’의 형성과정 나타난 구성원들의 학습경험 의미탐구」의 연구에서 문화예술실천공동체 ‘아라리 시민극단’ 구성원들의 학습경험 통해 주민주도의 문화예술을 통해 실천공동체의 성장 과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아라리 시민극단’은 ‘아라리’라는 전통을 계승하려는 공동체 목표와 사명감이 있었다. 그러나 연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갈등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연구자는 공감과 소통의 과정을 거치게 하였다. 예술적 활동을 통해 구성원들은 예술 활동의 순기능을 깨닫고 미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었으며, 잠재-결합-성숙-유지-전환의 단계별 프로세스를 통해 구성원들 간의 틀을 허물고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발전시켜 함께 성장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례의 연구결과를 통해 예술 전문가는 구성원들의 갈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예술 활동을 통해 구성원들을 단합시키고 공동의 가치를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 독립적 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는 단합과 조율의 지원 역할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연구 사례들을 통해 시민 연극에서 예술 전문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예술 전문가는 비전을 제시하는 해야 한다.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세우고 예술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하며 참여자와 지역사회 간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둘째, 예술 전문가는 교육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사회 구성원들이 연극의 상상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예술 전문가는 총괄 감독의 역할을 자처해야 한다. 시민 연극 내에서의 멘토의 역할 뿐만 아니라, 시민 연극 참여자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극학적 기획과 실행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거시적 안목을 길러줘야 한다.

넷째, 단합과 조율의 역할을 통해 구성원들의 갈등을 연극의 예술 활동 통해 순 선환 될 수 있도록 예술적 지원을 제시하여 독립적 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스스로 공동의 가치를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역사회와 문화예술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지역사회의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서 시민연극과 예술 전문가의 역할을 통한 시민연극 활성화에 대한 함의를 살펴보고자 지역사회와 문화예술의 담론을 통해 지역사회와 문화예술의 개념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시민연극의 연구 사례를 통해 예술 전문가의 역할을 정리하여 시민연극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지역 사회(Community)는 일정한 지리적 구역을 전제 조건으로 사는 공동체, 공동사회를 의미하며 사회 구성원들 간의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는 공동 집합체이다. 다문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여러 집단의 문화는 공존하게 되었고, 사회 구성원들은 서로의 문화에 불가피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서로 다른 문화는 사회 불안으로 이어갈 수 있으며, 사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나의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통합이 필요하게 되었다.

문화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생활양식으로서 그 과정에는 언어, 학문, 예술, 종교, 신념, 제도 등을 함께 만들어 간다. 하위개념의 예술은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공통의 행동 양식과 생활양식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전제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상위개념의 문화는 예술 활동을 통해 공통의 가치를 찾고 지역 사회의 기능을 확대 및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공통의 행동 및 생활양식을 공유하고 공존하는 지역 사회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시민연극은 참여자가 직접 만들고 참여하며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실천적 예술을 구현하는

예술 활동으로 연극의 창작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개인과 사회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민 연극의 사례 연구를 통해 시민 연극에 참여하는 지역 사회 구성원들에게 예술 전문가들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었다.

첫째, 예술 전문가는 비전을 제시하는 해야 한다.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세우고 예술로 표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하며 참여자와 지역사회 간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둘째, 예술 전문가는 교육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사회 구성원들이 연극의 상상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시킬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예술 전문가는 총괄 감독의 역할을 자처해야 한다. 시민 연극 내에서의 멘토의 역할 뿐만 아니라, 시민 연극 참여자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극학적 기획과 실행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거시적 안목을 길러줘야 한다.

넷째, 예술 전문가는 단합과 조율의 역할을 통해 구성원들의 갈등을 연극의 예술 활동 통해 순환 될 수 있도록 예술적 지원을 제시하여 독립적 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스스로 공동의 가치를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예술 전문가의 역할을 통해 시민 연극은 참여자가 직접 만들고 참여하면서 공통의 가치와 목표를 세우고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생적 방법을 구축할 수 있으며, 예술 활동을 통한 예술적 경험들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갈 것이다. 시민 연극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술 전문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제도적 마련을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시민 연극의 활성화를 위해 예술 전문가의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위한 과제를 후속 연구로 남겨두며, 인천의 시민연극은 물론 올해 첫 개최되는 인천 시민연극제가 오랫동안 사랑받고 무한히 발전하길 기원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이정화(2014). 문화예술교육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짐 아이프(2005). 지역사회개발, 인간과 복지.

필립 테일러(2009). 시민연극 : 연극을 통한 공동체, 참여 그리고 변화. 정동 거울.

차미숙(2011).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적 대응과제-지역사회개발통합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국토연구원.

2. 논문

김병주(2010). 교육연극 및 시민연극이 지닌 사회적 역할과 가능성 - PRAXIS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연극학, 71~83.

김금미(2021). 지속가능한 시민의 문화 활동과 콘텐츠 생산 : 서울시 시민연극제를 중심으로. 22, 59-71.

김동일·조중빈(1988). 사회통합-그 과제와 전망 : 구조적 전망에서 본 사회문제 소외집단의 정치의식. 地域社會, 1988(1), 11-53.

구민정(2013). 예술 교육을 통한 민주시민성 함양 사례 : 연극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연구, 8, 137~156.

곽미정(2017). 우리나라 조선족 여성의 사회적응력 및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집합건물법학, 24, 247~273.

류채연(2021). 문화예술실천공동체 ‘아라리 시민극단’ 형성과정에 나타난 구성원들의 학습경험 의미탐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상은(2022). 누구를 위한 연극 : 동시대 ‘시민’ 연극의 질문과 연극예술의 경계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2020)를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75, 11~45.

이민경(2018). 다문화사회통합을 위한 프랑스 언어·문화교육정책 : 한국사회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8(1), 88~116.

임주현·김병주(2022). 참여자 주체적 시민연극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성에 대한 소고 : 연극 및 예술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중심으로. 교육연극학, 14(1), p.127-150.

정옥희(2018).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 문화예술교육 실천 모형 탐색. 문화예술교육연구, 13(6), 71-94.

황아람(2019). 한국 커뮤니티 연극(communit theatre)의 전개 양상 연구 : 수도권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학위논문.

3. 보고서

강원택·정병기(2006). 국민통합 및 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연구 : 이념과 사회 통합 - 영국과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토론 2】

시민연극 활성화를 위한 예술전문가 도입
방안에 관한 제언

토론_ 이상전 (배우)

시민연극 활동 활성화를 위한 예술전문가 도입 방안에 관한 제언에 대한 질의문

우상전

(배우)

첫째, 비록 시민연극일지라도 관심을 끌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양성코스가 필요한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둘째, 출연자의 표현력을 위한 기본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셋째, 전반적인 성공을 위해 기획자와 pd의 기능- 예산 등, 연출가나 예술감독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인원을 어떻게 선발하고 확보할 것인가?

넷째, 가장 중요한 건 지자체나 주체자의 관심과 열정인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섯째, 시민연극은 창조의 중심이 시민이어야 하는데, 그들의 관심과 요구사항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가?

【발제 3】

시민연극 활성화를 위한 예술전문가 도입
방안에 관한 제언

발제 박진태 (여주대학교 교수)

시민연극과 함께 생활예술가로 살아가기

박진태

(여주대학교 방송영상미디어과 교수)

I. 들어가며

유구한 역사 속에서 연극예술은 늘 시민을 향해 있어왔고, 지금도 시민과 늘 함께하고 있다. 이러한 노정 위에 소위 대중 또는 관객이라 불리는 시민은 연극무대를 대하는 ‘객체’로서의 존재론적 의미이다. 연극이라는 극적 환영이 펼쳐지는 시·공간속에서 색다른 인물세계와 상황을 들여다보고, 오감을 자극하고 육감을 흔들리게 하는 다양한 기술효과들에 의해 펼쳐진 연극세계를 통해 감동과 위안, 일깨움, 새로운 의지와 성찰 등을 만나는 객체로서 시민은 존재해오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객체’로서의 시민이 ‘주체’로서의 시민으로 입장이 변경될 때 ‘시민연극’의 존재론이 부각된다. 시민연극은 시민이 연극의 주체가 되어 무대 공연을 위한 기획부터 제작(대본, 연기, 연출, 기술 등), 상연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자기주도 역량으로 대부분 소화해내는 것을 말한다. 프로페셔널 전문가의 입장은 아니지만 그들만의 재미와 감동의 세계, 자신들의 의지와 공감의 반영된 이야기 세계 그리고 때로는 자신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 나누고자 하는 아픔과 성찰, 희망에 관한 교류와 메시지를 연극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비전문가로서 예술 활동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시민연극’이라고 바라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세계적인 시민연극의 권위자 필립테일러(뉴욕대 교육연극학과 교수)는 시민연극은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행복한 사람을 위한’ 과정적 연극행위라고 논하기도 한다. 이 말은 즉, 주체로서 시민이 연극을 직접 만나게 된다는 것은 연극세계의 생산자이자 향유자의 양자 입장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성찰적으로 바라보며 진단하고 해결점을 찾아 나서거나 치유를 위한 매개 장치로 연극예술을 활용한다는 취지와 같다고 생각된다. 시민이 스스로가 안고 있는 문제 그리고 시민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질 제고를 위한 물음과 표현이 ‘시민연극’이라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더 큰 본질이 아닌가를 언급해주고 있다.

또 한편으로 에이브러햄 링컨의 화법을 빌리자면, 시민연극은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직접 개입으로 만들어지는 참여 연극의 한 형태로도 바라 볼 수 있다. 시민에 의해서 직접 만들어 지는 연극무대 안에서 만큼은 그들은 모두가 생활예술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생활예술가는 기존의 전문가/비전문가, 프로/아마추어라는 권위적인 이분화 식견을 넘어서 시민연극에 임하는 주체들의 고유 가치와 개성을 독자적인 성격으로 정의하는 개념이다. 그 안에는 그들의 창작행위에 대한 존중과 경의의 의미가 내재한다.

이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시민연극에 대한 탐색을 해보고자 한다. 시민연극의 본래적 의미는 무엇인지, 지금 현재적 의미는 무엇인지, 시민연극의 효용과 가치는 무엇인지, 시민연극을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재진단해보며, 시민연극을 통해 생활 예술가로 살아가는 유의미함과 그리하여 시민연극이 왜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찰로 이어가보고자 한다.

II. 한 걸음 더 들어간 시민연극 바라보기 _ 시민연극의 본질적 이해

일찌감치 ‘시민연극’ 이 발달되고 활성화된 서구에서는 ‘Applied Theater’ 라는 명제로 정립되어 왔다. 앞서 언급한 시민연극의 대가, 필립테일러는 서구문명에서 시민 연극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느 한 인터뷰를 통해 잘 제시해 주고 있다.

“시민연극은 커뮤니티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만들어진 예술작품으로, 교육과 학습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서는 TFD(Theatre for Development)라는 형태로 시민연극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위생, 문맹퇴치 프로젝트 등 해당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문제들을 연극을 통해 자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극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관객들이 연극에 참여함으로써 직접 연극자가 되고 그 캐릭터가 특정 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중재자적인interventionous 연극이라고 합니다. 특정 캐릭터가 어떤 딜레마에 처해 있으면 관객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캐릭터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개입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진행했던 워크숍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알코올 중독, 다문화 등 6개의 주제가 한국사회 내에서의 논의거리로 대두되었고, 이를 연극으로 풀어 낼 수 있었습니다. 시민연극은 전통적인 연극 공간인 극장에서 벗어나 병원이나 길거리 등의

다양한 사회적 공간에서 공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명칭은 다양한데, 예술강사 Teaching Artists 혹은 Arts Educator, 애니메이터, 영국에서는 Actor Teachers, 브라질에서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조커'라고 불립니다.” (필립 테일러 인터뷰, 아르떼 365아카이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0)

여기서 중요하게 새겨 볼 점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문제들을 연극을 통해 자각” 하고 있다는 점과 “연극을 통해 사회정의 실현” 하는 목적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시민연극(Applied Theatre)이 연극이라는 미적 형식의 힘을 통하여,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으며 개체로서 또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는데 중점을 두는 연극임을 강조한다.

이것은 또한 시민연극의 무게감이 남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칫 우리가 단편적인 시각으로 ‘시민연극’ 을 바라보게 되면, 비전문가 동아리 또는 아마추어 동호회 차원에서 기성 연극세계를 추앙해보고 싶은 욕망이나 자기만족적 극세계에 몰입하여 개인과 단체의 성과주의에 초점을 두는 개념으로만 오인될 수 있겠으나, - 물론 연극 자체의 대중화 측면에서 이것 또한 매우 의미 있는 현상이나 - 여기서 언급되는 ‘시민연극’ 과는 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시민연극’ 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왜 시민연극만의 독자적인 차별화 전략이 있는가에 대해 진단해볼 수 있겠다.

첫 번째는 시민연극이 펼쳐지는 공간은 비전통적 공간으로 확장된다. 비전통적 공간이라 함은 소위 극장이라는 연극적 환영이 펼쳐지는 닫힌 공간으로만 한정 짓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민연극은 연극적 환영이 중요하기 보다는 연극을 통한 직관을 더 우선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문제의식을 말할 있는 공간이라면 그 어디든 가능하다는 열린 공간주의를 표방한다. 그래서 병원이나 길거리 등의 다양한 사회적 공간에서 공연이 가능하기도 하고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허물어진 비전통적 공간을 지향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두 번째는 커뮤니티에 기반 한다는 점이다. 즉 지역사회에서 대두되는 문제점을 집어내서 지역에서의 문제의식을 연계하여 인지와 성찰의 반영으로 시민연극을 행한다는 점이다. 그런 과정에서 ‘공동체주의’ 가 강화되고, 시민이 적극적으로 사회문제에 참여하게 되는 구조적 특징을 지닌다는 점이다. 지역의 현안을 함께 지역시민이 주체가 되어 고민하고 극화하여 그것을 자기반영적 성격으로 들여다보고 지혜로운 문제 해결점 또는 치유의 과정을 거치는 특성으로 결속과 선한 영향력을 도출시켜 낼 수 있는 힘을 지닌 것이 시민연극이다. 이러한 개념이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연극을 공동체연극(Community Theatre)으로도 언급한다. “공동체연극은 시민연극 형식의 하나로 참여하는 개인들이 서로 연계하고 지원하도록 하여 그들이 누구이며 무엇을 소망하는가에 대한 공동의 논의와 표현의 기회를 제공한다. 시민연극은 스토리텔러로 하여금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체험하고 다양한 세계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하는 매체이다. 이 연극 작업은 예술 형식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 치유, 교육 그리고 배움이 적극적으로 연계되는 형태이다.” (시민연극, 필립테일러, 김병주 옮김, 청동거울, 2009)

세 번째는 명백한 참여구조다. 관객이면서 배우(또는 제작진)가 되기도 하고 배우(제작진)이면서 관객이 되기도 하는 쌍방향 소통으로 연극세계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서 공감과 해안으로 미적(연극적) 체험을 승화시킨다는 점이다.

또한 “시민연극은 연극 양식 자체가 대상들이 처한 상황 속의 이슈들을 인식하고, 그 문제와 맞닥뜨리며, 그 속에서 세상과 나와의 관계를 고민해내는 힘을 발휘한다는 확신에서 출발한다. 필요에 따라 시민연극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관찰자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시민연극은 주어진 연극 체험 속에서 대상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성찰할 능력을 포기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참여자가 연극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과 남의 행위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반추할 때 비로소 시민연극은 가장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 시민연극에서 대상의 참여를 규정짓는 두 가집 입장-연극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와 한편으로는 그 참여 행위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을 우리는 ‘참여-관찰’이라고 하나로 묶어서 묘사할 수 있다. 보알의 연극에서 강조하듯, 수동적인 관객이 아닌 능동적인 ‘관객이자 배우’로서 존재하는 것이 시민연극의 핵심이다.” (시민연극, 필립테일러, 김병주 옮김, 청동거울, 2009)

네 번째는 교육적 의미다. 시민연극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침과 배움이 오고가면서 교육 환경이 조성되고 그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속한 사회를 변혁시키는 행동의 가치와 성찰이 펼쳐지는 구조적 특징을 지녔다는 점이다. 일례로 “한 연극 팀이 지역사회가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가능하지 않은가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이끌어낼 임무를 의뢰받았다.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 간의 토론을 이끌어내고 그들이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에 적극 개입하여, 특히 청소년들의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을 논의하고, 이들은 지역의 청소년들과 성인들이 자신들이 생활하는 지역 사회에 대한 솔직한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는 참여적 연극 형식을 창작해야 한다. 이 연극의 목적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바꿀 수 있는 것과 불가능한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그들 스스로 파괴와 폭력, 억압이 지배하지 않는 지역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하는 것이었다.” (시민연극, 필립테일러, 김병주 옮김, 청동거울, 2009)

을, 2009)

이러한 배경들이 결국 시민연극의 본질적이고 확장적인 속성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일반적인 연극성과 다르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시민연극은 배우(주체)와 관객(객체)을 무대와 객석의 이분법으로 가르는 극장이라는 공간을 벗어나 지역 공동체 안으로 적극적으로 파고들어와 배우와 관객이 아니라 시민연극의 조율자(facilitator)이자 참여자로 만나는 연극이기에 바로 이러한 점들이 시민연극만이 지닌 무게감을 대변해준다.

Ⅲ. 시민연극의 효용과 가치 _ 시민연극의 현재적 의미

그렇다면, 과연 ‘시민연극’은 왜 필요 하는가에 시대적 소명을 다시 한 번 묻고자 한다. 물론 여기서 의미의 한계를 인정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 앞서 서구 시민사회 기준으로 ‘시민연극’의 본질을 파헤쳐 보았지만, 우리의 실정 속에서는 그러한 본질까지 천착해서 들어가는 데 물리적 한계를 직면하게 된다. 어쩌면 우리가 짊어 넘어가고자 하는 ‘시민연극’은 사회변혁까지 주도할 수 있는 철학적 접근으로서가 아닌 어쩌면 ‘시민 주도형’으로서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와 시민이 주인공이 되어 시민의 힘으로 연극 무대를 만드는 기획 또는 정책적 접근으로서 본래 의미가 더 크지 않나 판단해본다. 그것이 더 근본적인 취지에 부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시민 주도형’이라는 명제에 내재하는 ‘주체’와 ‘참여’로서의 시민연극은 매우 유의미한 가치를 함의하고 있다. 점차로 복잡해져가는 사회와 인간관계, 크고 작은 잦은 문제를 지닌 사회구조와 병리 현상, 다양한 이해충돌과 심리적 위화감 속에서 심신이 지쳐있는 환경에서 시민은 어딘가에서 든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만의 호소와 외로움의 해소, 위안이 되는 기댈 수 있는 ‘쉼’이 필요해진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시민연극’은 바로 이러한 재미와 휴식, 더 나아가 치유의 매개로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 판단해본다.

생애주기측면에서든 사회적(직업적) 위치나 처한 생활환경 또는 공통의 관심사에 따라 서로 간의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모여서 동아리 차원의 시민극단 또는 문화예술 공동체라는 형태로 묶여져 순수 연극의 활력을 도모하는데 의의를 두는 시민연극으로서 현재적 의미를 바라보고 그 효용성을 부각해 보고자 한다.

우선 시민연극은 자생적 지역문화를 창달하는데 일조한다는 점이다.

지역문화가 풍부하면 지역 시민의 삶의 질은 향상되기 마련이다. 풍부해진 삶의 질은 ‘나’ 중심의 나를 만나는 시선과 함께 ‘타인’의 시선으로까지 확장되고 ‘우리’라는 공동체 문화 형성까지 상승효과가 이어져 그것이 지역 결속의 힘을 잡아주는 모멘텀이 된다. 더 나아가 지역문화가 활성화되면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지역 자체의 경쟁력을 부추기는 효과도 있다. 그로 인해 지역민이 갖는 지역애(愛)와 자부심이 지역 이탈을 최소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거시적인 효과까지 고려해볼 수 있다면 왜 지역문화 창달에 시민연극이 중요한가를 유의미하게 바라보게 된다.

다음으로 ‘시민연극 만들기’ 또는 ‘시민연극 과정에 참여하기’ 자체가 지닌 고유한 기능적 효과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연극적 상황 속에서 그려지는 등장인물과 삶의 세계를 체화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다양한 잠재 역량들이 향상된다는 점이다.

몇 가지의 기능적 효과를 살펴본다면 우선 창의융합역량이다. 연극과 같이 비가시적인 대상을 무대로 가시화 시켜내는 과정에서 상상과 창조는 필수적이다. 상상력과 창조력을 사고하는 힘, 생각의 능력이 향상된다는 점이다. 연극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역할을 만들고 무대를 고안하고 효과를 발휘해야 하는 일들은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자신 앞에 당면한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 숙제이기에 어떤 방식으로는 무대 상연이라는 목표점을 향해 문제해결을 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각의 힘을 키워지고 그것이 상상과 창의로 모아지는 효과와 역량을 향상시켜 준다는 점이다.

한편으로 생각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정보의 활용분석이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된다. 그리고 극의 세계에서 만난 인물과 상황을 통해 인지와 성찰을 얻는다. 결국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앎을 통해 교육 역량을 부추기는 효과도 뒤따라온다.

또한 연극세계 자체가 ‘인간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감성을 자극하고 인간애(愛)로 상기하게 되는 인성 역량을 극대화하는 효과도 명백히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으로서 자기주도 역량 효과도 자명하다. 시민연극에 임하는 참여자들에게 정년은 없다. 어느 때든, 어떤 방식이든 스스로의 의지와 태도만 갖추면 꾸준히 평생 교육프로그램서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훌륭한 매개가 되는 것이 시민연극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 건강(헬스케어) 역량이다. 연극은 치유의 미학을 지니고 있다. 연극 세상을 통해 만난 삶과 상황, 인물들로 인해 참여 시민에게 유희본능을 자극토록 하여 놀이정신으로 건강한 호르몬이 생성되도록 돕는다. 그리고 연극적 대리 체험으로 얻어진 교감 그리고 같이 참여하는 시민들과의 연대와 공감, 의지는 정신적 이웃이 되어주면

서 갈등을 해소하는 치유효과가 있어 건강 역량을 향상시켜 준다는 의미도 새겨야 할 부분이다. 언제나 인류의 유구한 사회문화역사 속에서 연극은 사회적 정화 또는 변화를 일구어 내는 작용과 반작용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연극이 이러한 질긴 생명성을 지닐 수 있는 것은 연극세계만이 지닌 고유 효능과 가치가 인류에게 이롭게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시민연극과 함께 하는 시민은 이러한 연극만의 효과를 고스란히 만끽할 수 있다. 주체로서든 객체로서든 누구나가 그 매력을 얻어갈 수 있다. 이것이 시민연극의 필요성과 왜 더 활성화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된다.

IV. 시민연극의 효율적 접근방안 _ 시민연극 활성화를 위하여

그 동안 다양한 형태와 지역에서 시민의 연극 활동, 시민연극 행사는 늘 있어왔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체계적이지 못한 산발적인 활동과 구동력과 인내심을 잃은 시민연극 조직력, 지속가능한 발전과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유무형의 지원환경 부재, 그리고 아마추어리즘에 대한 대중의 편견과 무관심 등이 얽이면서 시민연극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해왔고 시민연극의 비활성화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시민연극이 다시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심이 먼저 앞서야 한다. 일반 시민으로서의 개인의 관심을 넘어 관(정부/지자체) 주도의 관심도 선행(先行)되고 계속 병행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관심은 애정이다. 시민연극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의 만들어 내는 품격이 떨어지는 작품이라는 여전한 고정관념부터 갖지 말아야 한다. 시민연극에 대한 애정의 관점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시민의 잠재 역량을 향상시켜주는 시민연극의 가치를 중시한다면 결코 무시와 무관심이 될 수 없는 것이 시민연극이다. 시민의 역량 증대는 곧 지역의 경쟁력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으로까지 이어진다. 경쟁력을 만들어 주는 브릿지이자 매개자 역할을 ‘시민연극’도 충분히 담당하고 역할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극복해야 한다. 따라서 시민연극을 바라보는 관점이 지나친 예술미학적 태도보다는 사회문화적 자세와 식견으로 고부가가치를 발견하고 육성해야 한다.

더불어 시민연극 조직의 자생성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시민연극 조직이 스스로 성장

하고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산발적인 시민연극 조직들의 네트워크, 공유플랫폼 등이 더욱 견고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하며, 시민연극 참여자들을 매개자로서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시민연극인이 생활예술가로서 지속성을 갖출 수 있도록 공공지원시스템과 환경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이제는 시민연극의 레퍼토리들이 기존 작품 위주의 상연, 기성 공연 형태의 복사(複寫)와 같은 접근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의 이야기, 시민이 겪은 드라마틱한 에피소드, 지역의 현안과 고민을 함께 나누는 애환들이 소통되는 시민연극 다운 시민연극화를 위하여 창작환경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필요하다면 지역민을 위한 극작 워크숍이나 지역 스토리텔링 워크숍, 시민 무대기술학교 등, 시민연극이 좀 더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극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들이 고루하게 시민들에게 새겨지는 확장교육도 필요한 것이다.

더 나아가 시민연극은 어떤 방식으로든 어디서든 의식과 공감대를 가진 시민들이 뭉쳐 행해져 왔다. 단지 조용히 자신들만의 작은 목소리를 내비칠 뿐이었다. 이제는 시민연극과 참여시민들이 당당히 활개를 펼치고 자신들의 작품을 많은 대중과 나눌 수 있도록 기회와 배려의 정책적, 제도적 환경, 놀이터와 같은 공간을 더욱 조성해줘야 한다.

V. 나가며 _ 시민연극과 함께 생활예술가로 살아가기

시민연극 활동의 활성화는 단지 향유자 중심의 연극 대중화를 위함만은 아닐 것이다. 진정으로 연극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연극을 만들고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형성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연극예술은 오랜 역사 속에서도 특정인에게 부여되는 재능이자 권한은 명백히 아니었다. 다른 예술장르들과는 다르게 연극예술 기예 중심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나눔이고 공감이었다. 그러다 보니 주체와 객체가 넘나들었고, 전문성과 비전문성이 혼재되거나 무화되었으며, 연극예술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경계 없는 지대로 이어져왔다. 그래서 더욱 더 시민연극이 왜 정당화 될 수 있으며, 우리 사회에 왜 시민연극이 존재해야 하는가를 되묻는 것이 불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시민연극 활동에 임하는 자들은 모두가 생활예술가들이다. 생활 속에서 연극예술을 찾고 누리고, 연극 예술로 생활의 활력을 만들고 나누는 것이 시민연극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토론 3】

시민연극과 함께 생활예술가로 살아가기

토론_ 이유경 (중앙대학교 교수)

시민연극과 함께 생활 예술가로 살아가기 질의문

이유경

(중앙대학교 연극학과 겸임교수)

“사람들은 예술을 오락이나 여흥 거리로만 보아서는 안 되며, 인간 서로 간의 관계 형성의 장(場)으로, 그리고 도덕 교육의 실험장소로 보아야 하며 진실한 공동체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관객이 극장 안에 있으면서 환상적인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삶의 일부, 모든 인간에게 관련되는 무수히 많은 사건으로 복합된 다양하고 위대한 삶의 일부를 경험하기 위해서라는 느낌을 관객에게 주고 싶었다.” 베를린 민중극단 연출가 에르빈 피스카토르(Erwin Piscator, 1893-1966)가 어느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에르빈 피스카토르, 양해숙 역, 1984)

배우와 관객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와 관객이 함께 있는 것이며 연극은 보기만 하고 감상하는 예술이 아니라, 무대에서 벌어지는 일은 나의 일이고 내가 참가해야 하는 정치 사회적 현실이라고 주장한 피스카토르는 자신의 연극을 정치극이며 서사극이라 명명하였다. (피스카토르는 1929년 그의 책 『정치(연)극』에서 ‘서사극의 개념과 방법의 원조는 피스카토르’ 라고 선언했다.) (서장원, 2017)

이렇듯 시민연극은 19세기 계몽주의 사상과 마르크스 사상의 영향을 받은 피스카토르의 정치극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박진태 교수는 발제문의 서문에서 ‘객체’로서의 시민이 ‘주체’로서의 시민으로 입장이 변경될 때 ‘시민연극’의 존재론이 부각되며 시민연극은 시민이 주체가 되어 무대 공연을 위한 기획부터 제작, 상연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자기 주도 역량으로 대부분 소화해내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시민연극이란 연극이라는 예술형식을 매개 장치로 활용하여 시민들의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실현하는 것으로 시민이 스스로가 안고 있는 문제와 시민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물음과 표현이 ‘시민연극’이라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필립테일러 교수의 시민연극에 대한 정의를 인용하여 설명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시민연극은 동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한 문제의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라는 내용적 측면과 더불어 생산자와 향유자가 동 시공간에 존재 및 쌍방

| 제 1 회 |

대한민국시민연극제 인천

시민연극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럼

| 일시 | 2022년 11월 11일 금요일, 오후4시

| 장소 | 인천수봉문화회관 2층 세미나실

